

■ 제주국제대학교 발달·뇌병변 장애인 욕구조사 해보니...

10명중 7명 “자립 사실상 어려워”

생활속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간의 돌봄’ 88%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 필요하다”

제주도내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 10명 가운데 7명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해도 자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건강상태가 나빠져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영 교수(제주국제대학교 사회 복지학과)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제주에 맞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모델 개발을 위한 장애인들의 욕구조사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제주도내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들의 생활속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간의 돌봄 문제’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출시 가장 큰 어려움은

‘동반자가 없어서’ 44%, 일상생활에서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88%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장애인 생활시설(유료, 무료)에 입소한다가 58%로 조사됐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해도 자립이 어렵다는 응답이 71%를 차지했다.

통합돌봄 우선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지원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지원 23%, 안전주거지원이 18%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시보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은 8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및 장애인 진화건강검진기관 확대 지원 등 돌봄과 보건·건강 원스톱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욕구 조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대상자인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기자 115명과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419명 등 총 53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연구담당자와 사전에 교육을 받은 설문조사원이 대상자 가정 및 시설을 방문해 1:1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욕구조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모델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우리 동네 버스킹 16일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자리한 가운데 공감예술단원들의 버스킹공연이 열렸다. 이상국기자

제주도민 지난해 하루 10.7명 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 ‘2018년 사고손상 사망자’ 분석 총 3912명 사망... 교통사고·극단적 선택 비율 높아

지난해 사고로 숨진 도민 중 절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조사방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제주 사고손상 사망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 사망자는 3912명으로, 하루 평균 10.7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과 견줘 4.6%(174명) 증가한 것이다.

사망 원인으로 살펴보면 암 등 ‘악성신생물’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의 2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순환기질환(18.7%) ▷호흡기질환(12.1%) ▷사고 손상 사망(10.7%) 순이었다.

사고 손상으로 인한 도민 사망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사고 손상 도민 조사방률(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64.3명으로 전국 평균 54.7명보다 17.0%(9.6명)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311명(73.7%), 여성 111명(26.3%)으로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사고로 숨진 사망자 중 약 절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해 사고손상 도민 사망자 422

명 중 201명(47.6%)이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자로 이들에 한명포로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과 비교하면 극단적 선택에 의한 제주지역 사망률은 30.6명으로 전국 평균(26.6명)보다 15.0% 높았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운수 관련 조사방률도 제주(14.3명)가 전국 평균(5.2명)보다 57.1% 높았고 추락 등 낙상(5.5명)과 익사(2.7명)로 인한 사망도 전국 평균보다 각각 5.7%와 145.4%씩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자살과 교통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도민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과 수준 높은 안전 의식 정착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장애학생위한 특수교육원 설립해야”

도내 장애인단체·특수학교, 도교육청에 촉구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주특수교육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와 도내 특수학교는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은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하는 제주특수교육원 설립을 통해 통합사회로 가는 첫걸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들은 “현재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1507명 중에 1058명이 일반학



교에 배치돼 비장애학생과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통합교육 지원인력과 장애 이해 부족 등으로 물리적 통합에 머물러 있다”며 “제주특수교육원을 설립해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원연수를 담당하게 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과 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부족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영지학교와 관련해 교육과정 분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의 ‘특수학교(급)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보면 영지학교 올해 기준 40학급이지만 학생 수 증가 등과 맞물려 2020년 42학급, 2022년 43학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영지학교는 장애학생들의 최소 교육환경인 교실이 없어 반쪽짜리 교실을 사용해야 할 실정”이라며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 고등학교와 전공과 과정을 분리해 장애학생들의 요구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이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서 수능 부정행위 2건 적발

지난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주에선 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확정되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

르면 한 수험생이 3교시 영어영역 시작 전에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LCD 표시가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했다가 적발됐다.

제7시험장인 신성여고에서 시험을 치른 또 다른 수험생은 4교시 탐구

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1선과목 시간에 2선과목 문제지를 함께 풀다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탐구영역에선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김지은기자

“이사회 선임 무효화 해야” 강철준 제주국제대 총장

동원교육학원 반박 입장문

제주국제대 강철준 총장은 “도내 사립대학 관할청인 제주도는 제주국제대학교 이사회 선임결의를 즉각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강철준 총장은 지난 15일 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는 이사회

회의 이사 선임결의를 무효화하고 제주도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2배수를 추천받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거나 아예 이사사부존재를 교육부에 통보해 임시이

사회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강 총장은 “과거처럼 학교나 법인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쉬쉬하면서 덮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종전 재단과 법인사무국의 유지원 재산 분리, 대학비 횡령금 미납과 고의적 보전 기피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은 조속한 수사에 착수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대해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반박 입장문에서 “이사 선출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

다”며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용도 변경 시 관할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법원에서 (법인재산) 등기

변경을 하려면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필수인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재산을 사유화 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을 폈다. 진선희기자

차량 바다 추락 운전자 숨져

제주시에 한 포구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1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9분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포구에서 김모(55)씨가 운전하는 SUV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김씨를 구조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김씨는 사망했다.

제주해경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안이나 포구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반찬·도시락 전문점

제주밥상

원하시는 가격에 맞춰서 성심성의껏 만들어 드립니다.

Tel. 064)755-6308, 010-6652-6798

회·포장 배달 전문

- 제주지역 당일주문 당일배송
- 서귀포지역 및 시외지역 당일주문 익일배송

· 광어	· 문어	· 생연어
· 우럭	· 명게	· 방어
· 참돔	· 소라	· 각종해산물
· 할고등어	· 전복	
· 자연산할어	· 개불	

**제주도전역
매일납품 가능**

판매장에서 도매가로 회와 해산물을 구입후 식당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판매장 | 용담1동 387(용두암 수산센터)
식당 | 용담1동 386(월척수산)

◆일반여행업 252호 ◆ 2억원 보증보험가입

가자 일영투어

T.727-2277

다낭 3박5일
12월 11일 출발
792,400원~
국내선 포함, 대한항공 부산경유

마카오/계림/양식 5일
872,500원~

방콕 5일 특가
599,000원~
방콕/차앙마이 899,000원~

하롱베이 12월 28일
899,000원~

브루나이 3박5일
12월 21일 단 1회
12월 25일 단 2회
1,590,000원~
골프 1,690,000원~

대만/야류/지우펀/스펀/단수이 4일
598,000원~

홍콩/마카오 4일
697,600원~
제주 직항 북경 4일
390,000원~

상해 4일 498,700원
상해·주가각 특특가 598,700원~
상해-장가계 999,000원~
제주 직항 매일출발

말레이시아 관광 4박5일 제주 직항
쿠알라룸푸르/말라카/젠링 5일 화·목출발 699,000원~
두나리여행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5일 화·목출발, 6일 월·토출발
말레이시아 골프 별도문의

역사탐방+중국오악 서안 진시왕릉 5일/6일
목·일출발 691,200원~

다낭/호이안/후배 5일 제주 직항
999,000원
상시출발 전액문의

가자 일영투어 IATA 공문/사항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전용차량료, 일정상의 식사, 관광지 입장료, 1억원여행자보험,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직항 그 외 해외상품 : 사이판, 싱가포르, 무이산하루, 장가계, 허니문, 호주, 시드니 등